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자들

(말라기 3:6-12)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눈 먼 것, 온전치 못한 짐승,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지 않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자와 결혼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잡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일조도 삭감하여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바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헌신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책망의 소리를 합니다.

### 1.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6절).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므로 예나 지금이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약속을 주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요, 책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전달되는 성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 소유하신 성품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성, 전지하심, 자존하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흉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경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2:17).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신자, 불평하는 자,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지 않았다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얼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미쁘신 분입니다.

### 2. 사람은 변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7절)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된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습니다(8-10절). 그들은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나온 십일조는 감사 십일조, 자비 십일조, 신앙 십일조로 구별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창 14:20). 야곱은 아버지를 죽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독의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언약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바람직한 헌금은 마음에 정한대로(고후 9:7), 믿음의 분량대로,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고후 8:3). 힘대로의 기준은 십분의 일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3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했으니 이것은 희생하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리듯이 헌금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의 기도를 합니다(창 28:20). 이것을 보면 십일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비 십일조는 매 3년마다 따로 십일조를 바쳐 가난하고, 병들고, 소독이 없는 사람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 십일조는 예배를 목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민수기 18:26에 의하면 레위인들도 십일조를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도 십일조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14:20 은 십일조를 드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십일조를 드리는 정신입니다.

이렇게 십일조를 드리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그의 형들이 애굽의 왕이 그들을 핍박하자 그에게 소독의 오분의 일을 낼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연유가 되어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에 와서도 하나님께 오분의 일을 드렸는데 이 제도가 말라기까지 연결이 되어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린다”(눅 18:12).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십일조를 드리며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병행구가 마 23:23. 눅 11:42에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마 23:23)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텃밭에서 나는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일조도 바치되 이런 것들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십일조 제도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10절).

헌금은 영어로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여 자유 의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람직한 헌금은 마음에 정한대로(고후 9:7), 믿음의 분량대로,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고후 8:3). 힘대로의 기준은 십분의 일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3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했으니 이것은 희생하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고후 9:13).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리듯이 헌금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faith offering)을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제물과 희생의 제물을 원하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12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제2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열린프로그램 내일 개강

### 3월 7일 (월) 부터 시작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D)이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27학기 과정이 '교회행정과 예식'을 주제로 또한 성도와 지역 주민을 위한 2005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도 내일부터 함께 개강되어 10주간의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제2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제1교시 강의는 이종운 목사의 시편연구가 지난 학기에 이어 계속되며 2교시에는 10명의 외부 강사의 주제별 강의를 계속된다. 1992년 봄 첫 학기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4년의 긴 시간동안 한 번도 쉬 없이 계속 되어온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연 인원이 2

만 여명을 웃도는 교계에서 정평이 난 권위 있는 세미나로 자리 잡았다.

또한 성도와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제17학기 서울성경대학, 제9학기 서울주부대학, 제10학기 살롬경로대학)도 성도들의 큰 호응아래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되고 있다. 열린 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은 교회 사무국에서 받고 있으며 수강료는 과목당 1만원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제2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주제: 교회행정과 예식
- 기간: 3월 7일(월) ~ 5월 9일(월) 10주간

일자	제1교시	제2교시 강의제목	강사	비고
3월7일		교회행정과 목회	이성희 목사	연동교회
3월14일		당회(치리회) 운영과 실제	손병호 교수	한국복음신학연구원
3월21일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황교안 부장검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3월28일	(오 후 2:00-3:30)	목회자와 교단행정	김순권 목사	경천교회
4월4일	시편연구:	교회와 조세	김영훈 교수	전)승실대 법학대학원장
4월11일	이종운 목사(서울교회)	교회와 선교단체(Para-church 운동)	최형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4월18일		상찬예식과 그 실제	정장복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4월25일		장례 및 결혼예식과 그 실제	이정일 목사	광장교회 원로목사
5월2일		임직식과 임명식	이승하 목사	해방교회
5월9일		예배음악	김순환 교수	한국성서대

### <제10학기 살롬 경로대학>

- 기간: 3월10일(목) ~ 5월12일(목)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101호) · 수강료: 10,000 원
- 1교시: 찬양 및 경건회 2교시: 교양강좌 3교시: 친교(점심식사) 4교시: 특별활동
- 특별활동: 성경교실, 컴퓨터교실, 읍등반

### <제17학기 서울성경대학>

- 기간: 3월7일(월) ~ 5월15일(주) 10주간
- 입학대상: 전교인 및 이웃주민
- 수강료: 10,000원(과목당)

일자	교과목	담당
3월10일	노년기의 신앙생활	이용식 목사(서울교회)
3월17일	약과 건강	이운진 권사(미문약국, 경희대 강사)
3월24일	건강과 한방	김재안 원장(에벤에셀 한의원)
3월31일	노인의 식단	나미용 집사(삼성의료원 영양사)
4월 7일	리듬체조	김희 선생(명배초등 선생)
4월14일	영화상영	담당자
4월21일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노송성 장로(인천국제공항금융(주) 대표이사)
4월28일	아외수업	전 학
5월 5일	체육대회	담당자(전교인 체육대회)
5월12일	자연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	이재운 집사(향초원 원장)

개설강좌	요일/시간	담당
사사기	월 오전 10:00-11:00	이규정 목사
에배소서	화 오후 7:30-8:30	이태훈 목사
베드로전후서	목 오전 6:00-7:00	오정식 목사
고린도전서	금 오전 6:00-7:00	김운호 목사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김운호 목사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오정식 목사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 2:00	한상은 목사
살롬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2:00	이용식 목사

### <제9학기 서울주부대학>

- 기간: 3월8일(화) ~ 5월10일(화) 10주간 · 장소: 602호 · 수강료: 10,000 원
- 1교시: 경건회 2교시: 교양강좌 3교시: 친교(점심식사) 4교시: 특별활동
- 특별활동: 음악교실(찬양, 복음성가, 가극), 인터넷교실, 요리강좌, 공예반, 독서(지도)교실

일자	교과목	담당
3월8일	서서적 인간: 육에 갇혀있는 인간	김재진 목사(연세대 겸임교수)
3월15일	아름다운 음악과 생활	김정택 장로(SBS예술단장)
3월22일	피부관리와 메이크업	장운정 실장(PCK 화장품)
3월29일	생활법률	이강진 집사(변호사)
4월5일	식목일(휴일)	휴일
4월12일	음악 그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로	박정선 장로(단국대 음대 교수)
4월19일	시인 에이츠의 세계	이원형 장로(한양대 교수)
4월26일	가정생활과 세금	이우진 집사(세무, 회계사 대표)
5월3일	아외 수련회	아외수련회
5월10일	신앙간증: 나의 신앙과 방송	강석우 집사(방송인)

### <교사양성반>

- 시간: 주일 오후 3:20 ~ 4:30 · 장소: 609호
- 대상: 세례교인으로 교사로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성도, 기존 교사로 미수료자와 희망자

일자	교과목	담당
3월13일	교회교육의 목표	이성득 목사
3월20일	구약 개설	이태훈 목사
3월27일	신약 개설	박광일 전도사
4월3일	교사의 자질	김운호 목사
4월10일	반목회	오정식 목사
4월17일	성경적 교회론	이용식 목사
4월24일	학생의 이해(별달심리)	한상은 목사
5월1일	학습지도	이규정 목사
5월8일	교사와 학생(심방, 기도, 상담)	지혜영 전도사
5월15일	예배의 자세	윤영국 목사

### 사순절의 묵상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여!

김영주 집사(3교구)



세상을 구원 하시려고 인간 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죽기 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주셨던 만 지금도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의 큰 대못으로 못질하는 저희들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 명예와 욕심을 따라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세상으로 달려가며 대립과 갈등,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찬 오만 불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주님의 그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보겠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져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비록 약하고 부족하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고난 뒤에 오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서 주님이 지신 능욕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롬 경로대학 · 서울성경대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싱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재운 집사(살롬경로대학)**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녘의 훈풍을 올려 보내주시니 겨울내내 추위에 응크렸던 개나리와 복사꽃 봉오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봄비를 머금고 한껏 젊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서울교회는 노년을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열 번째 살롬경로대학을 3월10일(목)에 문을 열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기에는 미약하여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한 경로대학이었지만 해를 거듭함에 따라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정성에 힘입어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급년 봄학기는 특별히 노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건강과 또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지체 말고 나오셔서 풍족한 영의 양식과 더불어 즐거운 찬양과 웃음으로 엔돌핀을 공급 받으시고 노년기의 건강관리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전도회원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준비된 육의 양식도 공급 받으시어 지치고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보십시오.

노년에도 더욱 젊음을 자랑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임옥근 집사(서울성경대학 총무)**



잠자던 영혼을 깨워 향긋한 영혼의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는 서울성경대학이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 생활했고 직분도 받았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더 이상 배울게 뭐가 있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며 “세상 살아가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공부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성경공부 할 시간이 어디있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물으면 막연하게 알 것 같은데 정작 답변이 궁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심 같이 성경공부가 세상학문의 기초가 되며 성경에는 세상 모든 학문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강의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은 물론 성경을 읽으며 이해되지 않던 의문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대학에 입학하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잘 배워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 받아 구원받고, 천국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참 일꾼, 싱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두 손모아 기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 하루 하루의 삶이 ...

**권영옥 권사(8교구, 살롬권사회)**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흘러 팔순 생일을 맞이 하게 되니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 여종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고 거느리시고 항상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으로 감사를 하오리까. 이런 저에게 ‘내게는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은 마치 살아가기 위한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을 차근차근 돌아보니 제 일생 중 가장 그립고 뜨거웠던 시간은 우리 서울교회가 창립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 벅찼던 감격과 기쁨이 아직도 제 마음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세계 그런 다시 못 올 아름다운 추억을 주시니, 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지...

오~ 주여!

이 여종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어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 계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날들이 지난 날들보다 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주일을 마치고

#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민광(고등부 교사)**

지난 27일(주)에는 고등부 601호실이 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꽉 채워지는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찬양, 말씀, 고등부 교육계획 발표, 소개영상 상영, 반별 대화 순으로 진행된 이날의 행사는 고등부 신앙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남으로써 고등부 학생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하여 개최 되었습니다.

먼저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찬양 드리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셔서, 어느 때 보다도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2:26-28)의 말씀으로 오정식 목사님은 아주 대조적인

두 종류의 자녀 교육을 학부모님께 전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식들을 사랑했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은 눈물의 기도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는 비결임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등부 1년 교육계획 발표를 통해서 고등부의 교육목표와 실행방안을 설명하며,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이끌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고등부 소개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고등부의 생생한 모습들이 전해졌으며, 고등

부 학생들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영상편지도 부모님들께 전달되었습니다.

고등부 교사 모두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날 학부모님과 교사의 만남을 통해 더욱 헌신함을 다짐하였습니다. 더욱 학부모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천국시민양성 - 에바다부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며...

# 가장 기쁜 몸짓으로...

**김미향집사**  
(11교구, 에바다부)

에바다부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참석할 수 없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



각하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았고 월말 정리하는 일들과 서점을 문 닫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에바다부 수련회에 참여 할 수 있었고 주체처럼 우리 에바다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과 준비하심으로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볼 수 없는 어린이부터 어른 권사님까지 다양한 연

령과 농민들과 건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기도 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천사도 흠모할 만큼 아름답고 모습이었습니 다. 임규현 목사님의 특 강 신앙 세미나가 끝나고 곧이어 안인호 부장 집사님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온몸으로 예수님

께 나아가게 했으며 손이 움직일 때마다 기도의 깊이는 더해 갔으며 가장 기쁜 몸짓으로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농민들은 1:1 전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에 대해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배운 대로 실천하며 많은 농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에바다부가 되자는 말씀으로 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 2월 새가족 환영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2월 중에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2월 새가족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지훈 고석규 고은성 권오래 권해찬 김경민 김규환 김동건 김동하 김명자 김민아 김민재 김보람 김복연 김수연 김연주 김 용 김 준 김홍식 나은영 남현우 민경주 민소영 박나영 박범수 박소영 박재관 박정미 서송희 서정여 서정용 서준섭 설치희 신구식 신해인 심주연 오혜린 유건상 유금현 유영근 유인재 유지현 유희상 윤석자 윤영근 윤옥현 윤희승 은종욱 이경진 이경화 이근업 이다미 이동엽 이민경 이상정 이순열 이순애 이승현 이용일 이용재 이위석 이유나 이유희 이재범 이정연 이정은 이재규 이종선 이혜옥 이화용 임경연 장민경 장원배 장원영 전봉열 정광순 정순심 정영교 정창식 조대제 조미숙 조수재 조정현 조혜란 주연제 채혜숙 최석민 최은혜 최진경 한치중 함중희 허린 허명 허윤화 허진 황난옥 이상 96명

## 찬양대 양성반 개강

오늘 오후 1시 30분 601호에서 찬양대 양성반이 개강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천국시민양성 - 신희가정부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며...

# 지란지교를 꿈꾸며...

**최만호 성도(8교구)**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냄새가 좀 나더라도 흥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비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 받고 나서도 말이 날라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가..." 이것은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했던 '지란지교(芝蘭之交)를 꿈꾸며'라는 수필의 일부분입니다. 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영적인 지란지교를 만날 수 있기를 늘 꿈꾸어 왔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얻는 평안과 기쁨을, 또한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이번 신희가정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이런 친구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사람과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님의 성막과 예수님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던 성경공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성경적 지식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져왔던 물건을 서로 나누는 시간, 한바탕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레크레이션 시간, 부부간의 쌓였던 불만과 사랑을 재확인하였던 나눔의 시간 등...이런 진솔한 시간들을 통해 난 서울교회 신희가정부 안에서 영적인 지란지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보여지지 않는 속사람의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속사람을 보지 못하는 한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수련회의 면모를 갖추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목사

얼마 전 우리 신희가정부 회원 중 한 가정의 주일 성수를 위해 이젠 더 이상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루를 포기함에 따른 아쉬움도, 다른 날 더 열심히 일해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겠다는 다짐도 아닌 그 동안에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데에 대한 회개와 반성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신희가정부 안에 누룩처럼 번져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등정

- 이종운 목사는 매주 화요일 장신대 대학원 강의를 한다. 8일(화) 군선교신학회, 11일(금) 총회 주기도 · 사도신경 위원회를 소집한다.
- 득남: 박정일성도 김명순성도 (3-15)  
득녀: 차원준 최현진 성도(6교구)
- 주간식당봉사: 권사회(3월6일) 빌립남선교회(3월13일)
- 금주의 식사: 권영옥 권사 (फल 생일을 감사하며)  
교회제공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J.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중국인터넷방송 - ( <a href="http://www.e-highway.com">http://www.e-highway.com</a> )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7학기 목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오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